

양돈의 생산성과 그 요인



유 성 열
((주)삼양사 영광축산시험장장)

돼지를 키울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우리는 생산성이라 부른다.

생산성이 좋으면 수입이 많아지고 낮아지면 수입은 줄어든다.

육질이나 질병은 수입에 크게 영향을 준다. 3~4개월 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료요구율, 분만사의 작업성적은 반 년 후에 결과가 나타나고, 임신시의 교미작업은 가깝게는 사육두수로, 멀리는 일년 후 출하비육돈으로 나타난다. 또 후보 우를 자체 선발해서 쓰는 농장은 현재 사용중인 송의 능력이 2년후 딸로 태어나 선발된 우의 새끼자돈의 출하때 나타난다.

1. 생산의 5대 요인

양돈장에는 많은 종류의 생산성이 있다. 돼지의 자질, 사람, 시설 등 여러가지가 비육돈의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요인을 크게 나누어서 보자.

● 양돈의 5대 요소

1. 종돈의 자질
2. 사료와 영양

3. 시설과 환경
4. 질병관리
5. 사양관리

출하되는 비육돈은 위의 5대요소가 갖추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그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면, 그 양돈장의 생산성이 좋은가, 나쁜가, 좋아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나쁘게 나타난 결과는,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질병,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만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병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농장 출입시 단속이 철저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위의 다섯가지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마치 다섯쪽의 송판으로 물통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어느 한 부분이 짧으면 그 물통(양돈장)에는 가장 짧은 송판높이(생산성)까지만 물(수입)을 담을 수 있다.

남보다 더 연구하고 공을 들여, 긴 송판으로 정성들여 물통을 만들면 남보다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다.

크고 좋은 물통도 주인이 무관심하여 송판 하나가 흠이 생기면, 물은 적게 담긴다.

“

양돈장에 있어서 생산의 5대 요인은
① 종돈의 자질 ② 사료 ③ 시설과 환경
④ 질병 ⑤ 사양관리를 들 수 있다.

”

주인은 물통이 새지 않는가? 수시로 현장을 살펴야 한다. 송판이 낡아서 갈아야 할 것은 없는가, 일보나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2. 요인별 설명

5대 요인은 어떤 점이 중요하고, 어떻게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가?

1) 종돈의 자질

경제형질이 우수한 종돈은 높은 값의 비육돈을 생산한다.

또, 양돈장의 우은 균일성이 있어야 한다. 교미시킬 때 개체의 발정특성이 있다면 임신시키기 어렵다.

또, 번식에 쓰이는 종돈의 자질을 알고 있어야 교배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우의 번식성적은 자돈 생산원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금은 비육돈 판매시 등지방 두께만 따지지만, 앞으로는 안심의 굵기, 육색, 부위별 비율, 근육내 지방 침적율을 보고 등급이 매겨진다.

특히, PSE가 나타나는 돼지는 가공원료로 쓰지 못하게 된다.

경제형질중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 두께는 양돈장 수입에 큰 영향을 준다.

2) 사료와 영양

아직도, “돼지”하면 “똥돼지, 뜨물통, 찌꺼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돼지는 사료만 주면 잘 크다”는 생각으로 막 키우는 양돈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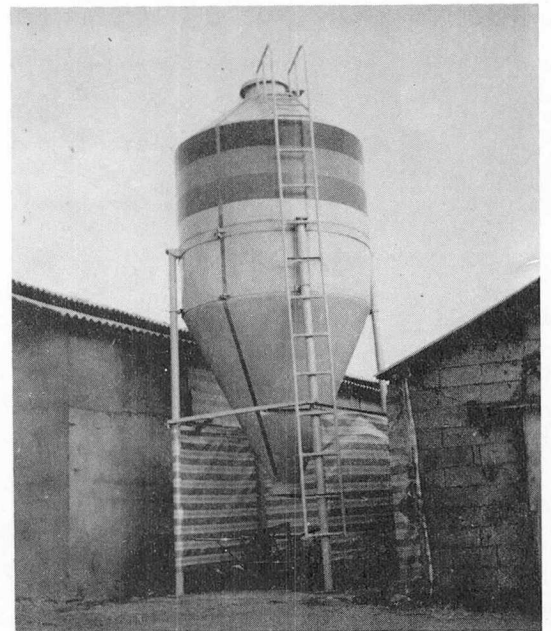
좀더 많은 수입을 바라다면, “돼지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고루 갖춘, 좋은 배합사료”를 “적당량” 주어서 키우는 양돈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람에게 “인삼보다 밥삼”이란 말이 있듯이 돼지도 평소에 좋은 사료로 잘 키워야 한다.

종돈으로 쓰기 위한 돼지는 육성돈부터 질 좋은 사료로 키울 필요가 있다.

요즈음, 양돈장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품질의 배합사료는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미량성분도 첨가되므로 종전처럼 자돈에서 영양성질병 포장방법도 소포장(10~15kg), 기준포장(25kg), 대포장(500kg), 무포장(벌크사료) 등 여러가지가 있다.

돼지에 좋은 사료가 양돈장에도 좋다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검토한 후, 양돈장 형편에 맞는 사료를 공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3,000두가 넘는 큰 양돈장에서 비육돈사료를 지대포장으로 급여한다면, 작업자는 사료의 하차와 급여에 많은 시간은 뺏기게 된다.



“

질병관리만은 뿌리에서 잘라나가는 방법으로 대비해야 안전하다.

“

치료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최후의 방법 이요. 최후의 방법이다.

”

”

3) 시설과 환경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입되는 외국의 돈육가 공품 판매가격이 예상보다 싸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양돈농가의 사육규모도, 몇 년 동안 점차 커지고 있다. 부업성격의 양돈에서 전업형태로, 규모도 점차 경제단위를 이루는 양돈장이 늘어나고 있다.

돼지의 생산성을 시설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뒷받침하여 높이려고 한다.

유럽의 전통적인 양돈농가는 돈사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사람보다는 시설과 기계가 돼지를 키우게 하고 있다.

두당 적절한 바닥면적, 바닥의 재질, 급이기 구조, 돈사 구조, 분만틀에서부터 돈사의 온도, 환기까지 돈사를 지을 때 포함시켜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한다.

급온과 보온 시설이 나빠, 돈사의 온도가 낮으면 새끼돼지는 탈이 난다.

환기가 불량하면 겨울이 지난후 반드시 호흡기 질병으로 약값이 많이 들고, 돼지가 죽으면 후유증은 한여름까지 간다. 돼지가 좋아하고 잘 크려면 어떤 환경과 시설이 필요한가, 책과 다른 양돈장을 보고 배우자. 작업이 편하고 인력이 적게 들려면, “어떻게 시설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자.

호미는 물론이고, 삽과 팽이로 밭갈이 하는 농부는 없다. 소로 쟁기질 하는 논이나 밭은 비탈진 곳이나 자투리 땅일 뿐이다. 웬만한 논, 밭은 경운기로 쟁기질과 로타리를 친다. 2~3년

전부터는 그보다 훨씬 능률이 좋은 트랙터를 이용한다. 모심기도 기계, 벼베기도 기계로 한다.

양돈장 시설도 어떤 것이 좋겠는가를 미리미리 알아두고, 다른나라 시설도 익혀 두도록 하자.

4) 질병관리

다른 요소는 80점, 70점을 맞아도 돼지를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질병관리는 99점을 맞았어도 특정 질병이 걸리면 비육돈 판매두수가 몇달동안 절반으로 줄어드는 양돈장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반 년 이상 분만복수가 절반이하로 떨어져서 우성돈도 팔고, 출하 비육돈도 없어서 1년동안 홍역을 치르는 양돈장도 있었다.

다른 요소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대책을 세워 고쳐 나가면 되나 질병관리만은 뿌리에서 잘라나가는 방법으로 대비해야 안전하다. 치료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최후의 방법이요 최후의 방법이다.

질병관리의 순서를 알아보자.

1. 농장의 위치

교통이 번잡한 도로에서 멀고, 사람 왕래가 적고, 통풍이 잘 되는 남향에 위치할 것.

또, 주위의 양돈장과 멀 것.

2. 농장면적이 적당할 것.

인접토지와 격리공간이 필요.

외부 방문차량의 주차공간 필요. 들어오는 도로와 나가는 도로가 다르다면 좋다.

3. 양돈장 출입시 소독

사람, 차, 돼지가 들고 날 때 철저한 소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죽사

돈사 종류별 배치, 구조, 환기시설, 입구의 소독판, 돈사내 소독시설.

5. 외부 구입돈 사육시설

반드시, 2개월 이상 사육은 별도로 하여 새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6. 주인의 행동

종업원, 방문객에게 질병에 대한 주인의 의지를 보여주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한다.

7. 예방접종과 소독

질병별, 연중 예방접종 계획을 실시.

소독은, 겨울은 주당 1회, 봄·가을은 주 2회 실시하고, 여름에는 1~2일마다 실시한다.

8. 종업원 교육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질병내용(정상과 비정상)을 교육한다.

9. 폐사돈 부검실시

눈으로 보여주므로써 판단력을 길러준다.

10. 외부의뢰

경험있는 사람, 수의사 등 필요하면, 가축보건소에 수시로 질병을 확인받고 대책을 세운다.

질병관리의 포인트는 두가지다.

하나는 발병하고 있는 질병의 최소화와 퇴치요, 또 하나는, 새로운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작업이다.

질병의 최소화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치료를 하며 all-out, all-in 방법을 실시한다. 퇴치를 위해서 철저한 예방접종을 한다.

새로운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출입시, 소독을 철저히 한다.

사료차도 입구에서 하차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돼지 출하도 양돈장의 운반차량으로 입구까지 실어줄 수 있다.

외부 구입돈은 철저하게 관찰하며, 새로운 질병이 보이면 도태시키는 것이 좋다.

예방에 100원이 들면, 효과는 1,000원이었다.



5) 사양관리

다행스럽게도, 살아있는 동물을 키우는 양돈장에는, 좋은 사양관리 방법이 너무 많다. 시설에 따라 다르고, 농장마다, 지역마다 또, 주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큰 흐름은 같다.

100~200두만 잘 키워도 생활에 지장이 없던 시절은, 탈이 난 새끼돼지를 돌보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큰 경험으로 자랑스레 얘기할 수 있었다.

이제, 1인당 300-400두의 돼지를 키우려면 시설의 뒷받침도 있어야 하고, 숙달된 솜씨로 처리해야 한다.

사양관리 방법 결정의 기초는 사람과 돼지로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지 생리에 맞게, 잘 크게 키울 수 있을까? 돼지가 불만이 없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평소에 돼지를 알아두면 많은 도움을 받는다.

사람에게 편한 방법인가? 일하는 능률은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다음 작업과 연결은 어

표. 양돈 생산의 5대 요인

구 분	종 돈	사 료	시 설	질 병	관리방법	비 고
변동성	△	○	×	×	○	○ : 쉽다 × : 어렵다 △ : 중간
변동에 필요한 기술	△	○	△	×	○	
변동에 소요되는 기간	3 년	즉 시	공사기간	?	단기간	
변동에 소요되는 금액	적 다	.	많 다	약 간	.	
변동에 필요한 지식	고	고	.	중	경 험	
변동에 대한 주인 의지	항상필요	.	크게필요	항상필요	필 요	
문제점 발견은?	항상대비	수시검토	자료수집	항상대비	새방법도입	

편가? 필요하다면 시설을 고쳐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위에 거론한 5대 요소를 양돈장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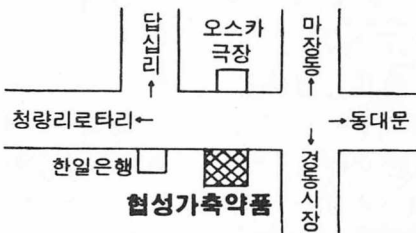
위의 표를 보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인의 의지와 실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돈장의 생산성은 주인의 노력과 연구에 달려 있는 것이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 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 (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약품도매전문 *

〒 131 서울·동대문구 제기1동 654
 (오스카극장 앞)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